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4. 14. / (총 7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양 윤 석 김 민 주	전 화	044-202-3575 044-202-3808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과장(직무대리) 담 당 자	방 영 식 조 호 식	전 화	044-202-2903 044-202-2926	
중앙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유 보 영 박 지 혜	전 화	044-202-3713 044-202-37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백신 치료제 개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스페인 귀국 국민 지원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백신 치료제 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4월 16일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대책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께 널리 홍보해달라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상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균형 감각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치료제·백신 개발의 조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치료제의 경우, ▲연내 치료 가능한 약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약물의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약물 재창출 임상시험을 신속 지원하고, ▲확진자의 혈액을 활용한 항체의약품 및 혈장치료제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 항체의약품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과 국내 기업(셀트리온)이 공동 연구 진행 중으로,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여 빠르면 내년 중으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 혈장치료제 또한 국내 기업과 공동연구 진행 중으로, 다량의 혈액이 확보되는 경우 2~3개월 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백신 개발 분야는 미국과 약 6개월의 개발 격차가 존재하나,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국산백신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 연구를 추진 중이다.

* 합성항원백신, 핵산(DNA)백신, 바이러스전달체(mRNA)백신

○ 앞으로도 ▲완치자 혈액확보 간소화, 기관 IRB 면제 등 규제 적용 합리화, ▲유망과제 발굴, 재유행 대비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 연구 등을 위한 감염병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AI 기반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구축, ▲공공백신개발센터(20.10월 완공),
백신실용화사업단 등 연구 인프라 확충, ▲감염병 연구 국제협력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체계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하여,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 범정부지원단 운영을 뒷받침할 실무추진단 및 사무국을 신속히
구성하여, 이번 주 중으로 범정부 지원체계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11일에 이어 민간 특별연결항공편을
통해 어제 오후 2시에 인천공항에 단체 입국한 스페인 재외국민과
가족 총 43명에 대한 검역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 도착 후 입국 검역을 통해 총 15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인천
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증상이 없는 28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하여 검사한 결과, 43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4월 11일 스페인발 특별연결항공편 입국자는 총 39명 중 유증상자 1명이
양성 판정되어 의료기관 이송, 그 외 38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어 14일간
시설격리 중

- 2차 입국자들 전원이 음성 판정됨에 따라 입소일로부터 4일 후인 17일에 임시생활시설에서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확진자가 없는 경우, 퇴소 조치 후 남은 10일은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 현재 스페인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시설관리,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실시 중이며 임시생활시설 내 의료진이 상주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스페인 귀국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 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0.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불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

중앙일보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3:00 사설/칼럼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

정부의 감염원 유입 차단 실패와 종교 집단 대규모 감염이라는 악재에도 이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의료진 덕분이다. 특히 감염 위험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의사-간호사의 헌신적 노력이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7%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다.

오랜을 거듭한 정부가 그나마 사태를 진정시킨 의료진에 큰절을 해도 보자할 판인데 그들의 여가를 무시하라는 일을 연거푸 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 문헌하며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는 데 정신이 팔려 나라를 구한 이들에게 고마움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의 수감 논란은 의료진에 허탈함을 안겼다. 정부는 임시 선별진료소(트라이스트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는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정책을 만든 관리가 하루라도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식 중상이 있는 방문자의 목과 코에서 콧물을 채취해 보라.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겠다.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이 지친 의료진의 몸과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보호복 등 보호 물품이 부족하다는 의료기관의 호소에 “알아두고 쓰려고 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 시지 일부의 사시는 보호복이 없어 대신 수술 가운을 입기도 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해법으로 숨진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반응이 한 차례(그 앞 입곱 차례는 음성) 나오자 검사가 잘못됐다며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했다가 철회한 인도도 있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족박을 깨려 들어사야 되겠는가. 대한의사협회는 “나서 달라고 읍소하다가 사정이 좋아지자 포레 군림하려 드는 모습이 임진왜란 의병장들에게 누명을 씌운 무능한 조선 관리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상황에서 보듯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이다. 이미 120여 명이 감염됐지만 목숨을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경의를 표하고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진한-아산에 격리된 교민들이 받았던 ‘최고대 도시락’과 질병관리본부에 간 ‘최고대 반찬’가 의료진에 당도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 사실 아님

-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 사실 아님

-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 → 사실 아님

-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 사실 아님

-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돈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 이후 일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한국경제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A34면 코로나19

이학영 칼럼

‘글로벌 호구’ 방역외교, 더는 안 된다



상임논설위원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발”
국민은 “해외로 감염확대” 비난

부엌을 위한 외교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국민들은 “해외로 감염확대”를 비난했다.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국민들은 “해외로 감염확대”를 비난했다.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국민들은 “해외로 감염확대”를 비난했다.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국민들은 “해외로 감염확대”를 비난했다.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국민들은 “해외로 감염확대”를 비난했다.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국민들은 “해외로 감염확대”를 비난했다.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